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차] 예잇거리 최종 심의평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예잇거리 사업은 예술인이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기반의 경험을 공유하여 예술인의 창작 지평을 확대하고 서로 간의 배움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류심사 및 동영상 심의 등의 단계별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18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 및 동영상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심의위원 간 논의를 통해 재확인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꾀하였습니다. 확장성, 적정성, 기대효과 등의 심의기준을 중심에 놓고,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그 결과의 상대평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사업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인가?'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가?' '창의성을 높여주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가?' 등을 검토하여, 경험과 활동의 공유, 예술인 간 커뮤니티 형성 및 교류, 선순환되는 도내 문화생태계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실현가능성도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업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예술인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진행된 교육(강의) 형태, 개인의 창작물 등의 프로젝트는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인의 장르를 매개로 하되, 여러 예술인과 함께 고민하고 창작하는 과정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원편수가 한정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목처럼 '예술인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예잇거리'의 지원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분야 예술인의 예잇거리가 많은 예술인에게 전파되어 창작의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져 도내 문화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 07. 26.

심의위원

신동호 이의신 김태홍 권지애